

구 나니와 창고

나니와 창고는 오타루 운하 남쪽 끝에 있으며, 현존하는 오타루 창고군 최대 규모의 창고 중 하나입니다. 이 목골석조 창고는 1925년에 지어졌습니다. 800평 이상의 넓이를 갖추고 있으며,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도록 오타루 운하 쪽에 개구부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 건물은 오타루 예술촌의 일부인 서양미술관으로 재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오타루 예술촌은 여러 역사적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과 소규모 미술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양미술관 컬렉션의 역사는 오타루 번영의 절정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람 포인트는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아르누보, 아르데코의 유리 제품, 가구 및 집기, 도자기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제작된 서양 미술품입니다.

2개 층에 있는 5개의 방에는 에밀 갈레(*Emile Gallé*, 1846년~1904년), 오귀스트 돔(*August Daum*, 1853년~1909년), 안토닌 돔(*Antonin Daum*, 1864년~1930년), 르네 랄리크(*René Lalique*, 1860년~1945년) 등 유명한 프랑스 예술가가 만든 유리 세공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은 독일의 제조사인 마이센의 도자기 화병과 작은 입상(인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방에는 빅토리아, 아르누보, 아르데코 양식의 가구와 집기 컬렉션이 놓여 있습니다.

구 나니와 창고는 창고 회사인 나니와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나니와는 19세기 말에 일본의 해운업이 급성장했을 때 설립된 창고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 국내, 러시아, 유럽에서 오타루 항구를 경유하는 화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타루는 일본 유수의 창고가 모이는 지역 중 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니와 창고 주식회사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알려진 스즈키 요네(1852년~1938년)가 이끄는 스즈키 상점의 자회사였습니다. 스즈키 상점은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상사로 설탕, 장뇌유, 밀가루, 쌀, 부동산, 철강, 채굴, 해운 등을 취급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세계 대공황으로 기울어가던 1927년에 도산했습니다.